

2026년 9월 말레이시아 관광시장 동향

'26. 9. / 쿠알라룸푸르지사

○ 브루나이, 사바 국제 엑스포에서 관광 홍보

- 브루나이 관광개발부는 지역 관광시장에서 브루나이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9월 4일부터 6일까지 말레이시아 사바에서 개최되는 사바 국제 엑스포에 참가
- 브루나이 관광개발부는 이번 3일간의 행사 참가 기간 동안 브루나이 커피 트레일 홍보 행사와 2027 브루나이 방문의해 로드쇼를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 말레이시아 페락주, 숙박 관광객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 페락 주정부가 주 내에서 최소 1박 이상 숙박하는 관광객들을 위해 40링깃(약 1만 4천원) 상당의 바우처 2,000장을 확보, 등록된 여행사 및 관광협회, 호텔, 관광 관련 상품 및 사업자를 통해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힘
- 이는 관광객들이 페락주에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은 관광지를 둘러보며, 주 내에서 더 많은 소비를 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대표적인 목적지인 이포를 넘어서 쿠알라 강사르, 타이핑, 팡코르를 비롯한 페락주 전역으로 관광 목적지를 확대시키기 위한 것임
- 특히 자연경관과 관광 자원, 그리고 항공 레저 활동을 위한 잠재력을 고려할 때, 주정부는 타이핑이 최고의 항공 스포츠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타이핑의 항공 기반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이곳을 페락주의 항공 스포츠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임

○ 말레이시아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6만명 태국 남부 지역 방문 예상

- 태국-아세안 할랄 무역 및 관광협회는 말레이시아의 독립기념일과 학교 방학을 맞아 많은 말레이시아인들이 태국 남부를 찾고 있으며, 5일 동안 현지에서 약 3,600만 링깃(약 126억원)의 소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주요 목적지는 핫야이, 파탈룽, 사툰, 베통, 방콕, 크라비로, 인기 여행지의 호텔은 약 95%가 예약된 상태이고, 말레이시아-태국 간 육로 국경 통과 지점들은 가장 혼잡한 지점으로 꼽힘
- 최근 일부 말레이시아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태국 관광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총

1만5,000바트(약 6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아 태국 여행 보이콧 우려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

○ 에어아시아, 튀르키예 페가수스항공과 최초로 코드셰어 협정 체결

- 에어아시아가 튀르키예의 저비용항공사 페가수스항공과 사상 첫 코드셰어 협정을 체결, 이스탄불을 경유해 동남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새로운 항공 네트워크를 구축함
- 일단 이스탄불에 있는 페가수스항공의 허브공항을 이용해 쿠알라룸푸르와 유럽 5개 도시(런던, 모스크바, 앙카라, 취리히, 아테네)를 연결하며, 향후 100개 이상의 노선으로 연결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
- 에어아시아는 또한 현재 주 4회 운항 중인 쿠알라룸푸르-이스탄불 노선을 2027년 2월까지 주 7회로 증편해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는 승객들에게 더 많은 여행 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으로, 이번 코드셰어 협약에 따라 승객들은 하나의 예약으로 환승 여정을 예약할 수 있으며, 수하물도 최종 목적지까지 자동으로 연결됨
- 물론 유럽 여행객들도 이스탄불과 쿠알라룸푸르를 경유해 에어아시아의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아세안, 아시아 및 호주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음
- 이번 파트너십을 기념해 에어아시아는 쿠알라룸푸르에서 이스탄불을 경유해 유럽 5개 도시로 이동하는 프로모션 편도 항공권을 RM799(약 27만9,650원)부터 판매

○ 말레이시아항공, 28년만에 부산 재취항

- 말레이시아항공이 오는 12월 2일부터 쿠알라룸푸르-부산 직항편을 운항한다고 9월 4일 관광박람회(MATTA Fair)에서 발표
- 말레이시아항공은 보잉 B737-8 항공기를 투입해 쿠알라룸푸르-부산 노선을 주 4회 운항할 예정으로, 이는 말레이시아항공이 1996년부터 1998년까지 해당 노선을 운항한 이후 28년 만에 부산으로 돌아오는 것임
- 노선이 재개되면 말레이시아항공은 쿠알라룸푸르와 부산을 논스톱으로 연결하는 유일한 항공사가 됨
- 부산 노선은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운항하며, 취항 기념 왕복 항공권은 이코노미석 RM2,139(약 74만9,000원)부터, 비즈니스석은 RM4,999(약 175만원)부터 판매

○ 청두-폐낭 직항 노선, 16개월 동안 약 54,700명의 승객 운송

- 2025.5.1. 취항한 중국 청두-말레이시아 폐낭 직항 노선이 지난 16개월 동안 총 376편 운항되어 약 5만4,700명의 승객을 운송했으며, 폐낭에 약 3,000만 링깃(약 105억 원)에 달하는 관광 관련 경제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발표됨
- 이 노선은 쓰촨항공에 의해 운영되면서 쓰촨성과 폐낭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한편, 관광·비즈니스·문화 교류를 촉진하였고, 초기에는 주 5회 운항했으나 높은 수요에 힘입어 10월부터 매일 운항으로 증편
- 이 노선을 통해 폐낭이 중국 및 중국을 넘어 더 광범위한 항공 네트워크와 다양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청두를 경유해 폐낭을 찾은 여행객은 베이징, 정저우, 쿤밍, 난징, 쉬저우, 지난, 항저우 등 중국 각지에서 온 것으로 나타났고, 러시아, 일본, 이집트, 튀르키예,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캐나다 등 중국 외 국가의 여행객들도 청두를 경유해 폐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 사바주 관광업계, 방문의 해 앞두고 패키지 보조금 등 정책적 지원 요구

- 사바주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2027 사바 방문의 해를 앞두고 쿠알라룸푸르와 코타키나발루 간 항공료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관광 패키지에 대한 맞춤형 보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항공료 전반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관광 패키지 비용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춘 지원책을 통해 주내 관광객 유치를 이끄는 업체들에 실질적인 지원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 또한 최근 코타키나발루의 호텔 최소 10곳이 물 공급 중단에 영향을 받은 만큼, 호텔 운영자들이 단수 사실을 미리 통보받을 수 있도록 사바주 수도국, 코타키나발루 시청 및 관계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
- 그 외에도 허가받은 관광 운송업체를 디젤 보조금 지급 범위에 포함하고, 대신 불법 뱃 업체들이 다른 용도로 지급된 디젤 보조금을 활용해 뱃을 운영하면서 가격을 낮추고 있다며 불법 뱃 운행에 대한 당국의 단속을 강화하고, 사바주 전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무허가 단기 임대 숙박시설에 대해 면허 당국과 지방 당국이 규제에 나서 방문객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도 주장

○ 태국, 말레이시아인 무비자 체류기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 태국은 개정된 입국 규정에 따라 9.15.부터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60개 국가·지역의 무비자 태국 입국 후 체류기간을 30일로 단축
- 다만 주태국 말레이시아 대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여행객의 태국 평균 체류기간

이 약 4.3일에 불과하여 이번 조치가 말레이시아 여행객에게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음

○ 대한항공, 쿠알라룸푸르-인천 노선에 대형기 투입 검토

- 대한항공은 여객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비즈니스석에 대한 수요도 높아짐에 따라 쿠알라룸푸르-서울 인천국제공항 노선에 더 큰 항공기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이번 좌석 공급 확대 검토는 대한항공이 2026년 상반기 쿠알라룸푸르-서울 인천 구간에서 86,507명의 승객을 수송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서울에서 쿠알라룸푸르로 들어온 승객은 40,027명이었으며,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한 승객은 34% 증가한 27,222명을 기록
- 대한항공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발 한국행 수요가 10%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서울·부산·제주 등을 방문하는 말레이시아인 여행객 증가에 힘입은 것이고,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인한 환승 수요 증가 역시 큰 원인

○ 에어아시아 재무위기에 따라 일부 노선을 경쟁사가 인수할 것을 타진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에어아시아측은 즉각 부인

- 로이터통신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에어아시아의 국내선 노선 일부 운영을 경쟁사인 말레이시아항공과 바틱에어가 흡수할 수 있는지를 두 항공사에 문의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에어아시아측은 이를 부인하였음
- 말레이시아 전체 항공 시장의 약 40%, 국내선 항공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에어아시아는 중동 갈등으로 인해 항공유 가격이 2분기에 전분기 대비 66% 상승해 배럴당 평균 183달러를 기록하면서 재무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음
- 로이터통신은 또한 에어아시아가 외부 투자자로부터 신규 자본을 조달하려는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어떤 형태의 지원 또는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고 보도
- 그러나 에어아시아의 창업주 토니 페르난데스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부인하였으며, 올해 2분기에 에어아시아가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3분기 실적을 확인해보면 개선될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

○ 말레이시아 국내 관광 지출 전년 대비 12.3% 증가

- 2026년 2분기 말레이시아 국내 관광 지출은 328억 링깃(약 11조 4,8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하였고 국내 관광객(tourist, 여행 중 최소 1박 이상 숙박한 방문객(visitor)) 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해 2,960만 명을 기록했다고 통계청이 발표

- 국내 관광 지출은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올해 1분기의 340억 링깃(약 11조 9,000억 원)과 비교하면 3.6% 감소한 것임
- 2026년 2분기 국내 방문객 수는 7,380만 명으로, 2025년 같은 분기 대비 4.3% 증가했고, 목적별로는 친척 및 친구 방문(44.1%), 쇼핑(21.6%), 휴가(13%) 순
- 통계청은 국내 관광 지출이 12.3% 증가한 반면 국내 방문객 수는 4.3%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는 관광객들의 지출 규모가 더욱 크게 증가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힘

○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 국제 메가허브 공항 순위 4위(저비용 메가허브 중에서는 1위) 기록

- 항공 데이터 분석사 OAG의 보고서에 따르면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연결성이 높은 국제 메가허브라는 기존의 입지를 유지했으며, OAG의 2026년 저비용 메가허브(Low-Cost Megahubs) 지수에서는 1위를 차지
-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은 아태지역 메가허브 중 1위로 평가되었고, 항공사들이 154개 목적지를 연결하며 저비용항공편 조합도 약 15,000개에 달함
- 해당 공항 운항편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항공사는 에어아시아로, 전체 운항편의 34%를 기록하고 있으며, 보 링엄(Bo Lingam) 에어아시아그룹 CEO는 이 순위가 에어아시아가 구축해 온 네트워크와 말레이시아항공공사와의 협력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힘

○ 말레이시아관광청, 내년 유치 목표 달성 위한 대규모 예산 배정 요청

- 말레이시아관광청은 방문의해 캠페인이 2027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외래관광객 4,70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해 2027년 예산(Budget 2027)에서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
- 관광청은 추가 예산이 국제시장에서 말레이시아의 관광 홍보를 지속하고, 관광객 유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며, 업계에서는 말레이시아를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광부문에 대한 예산 배정을 늘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
- 관광청은 관광산업이 사회 내 다양한 계층에 폭넓은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며, 호텔

과 레스토랑뿐만 아니라 관광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

- 관광산업의 실적과 관련해 관광청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제관광객 입국자가 2.5% 증가한 2,110만 명을 기록(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060만 명)했고, 올해 1분기 국내 관광 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4억 링깃(약 10조 2,900억 원)에서 15.8% 증가한 340억 링깃(약 11조 9,000억 원)을 기록했으며, 국내 관광객 수는 6,970만 명에서 7.2% 증가한 7,470만 명으로 늘었다고 공개

○ 인바운드관광협회, 디젤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업 부담 호소

- 말레이시아 인바운드 관광협회(MITA) 회장은 보조금이 적용되지 않는 디젤 가격이 리터당 5.27링깃에서 5.42링깃(약 1,897원)으로 상승하면서 운영업체들의 수익성이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협회 회원들이 현재와 같은 손실을 두 달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
- 특히 단체관광을 운영하는 업체들의 경우 수개월 전에 해외 파트너들과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 기간 중에 비용 상승분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없고,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해 부담이 더 크다고 주장
- 또한 연료 가격 인상이 관광객 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에 반박하면서, 개별 관광객들은 보조금을 적용받는 차량으로 운행되는 차량 호출 서비스(그랩 등)를 이용할 수 있지만, 단체관광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관광버스 운영 업체들은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밝힘
- 협회는 전국적으로 운행되는 관광 차량이 5,000대 미만으로 추산된다고 하며, 이는 충분히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선별적인(targeted) 보조금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연료 보조금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

○ MM2H 비자, 약 2년간 7,650건 접수 및 89억링깃 경제가치 창출

- 말레이시아의 세컨홈 비자 프로그램(MM2H)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88억 5,000만 링깃(약 3조 980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여기에는 50억 링깃(약 1조 7,500억 원) 이상의 부동산 구매와 38억 2,000만 링깃(약 1조 3,370억 원)의 정기예금(fixed deposits)이 포함됨
- 관광예술문화부는 같은 기간 동안 플래티넘(Platinum), 골드(Gold), 실버(Silver),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등급을 합쳐 총 7,650건의 신규 신청이 접

수됐으며, 그 중에는 중국이 3,847건으로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고, 그 뒤를 대만 (1,054건), 홍콩(324건), 싱가포르(287건), 미국(284건)이 이었다고 공개

- 홍콩, 일본, 한국 등 주요 타깃 시장에서 프로그램의 인지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MM2H 원스톱센터(One Stop Centre)가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해외 세일즈 미션을 진행할 예정

[자료 출처 : 현지 주요 언론 종합]

- 브루나이, 사바 국제 엑스포에서 관광 홍보

<https://www.thestar.com.my/aseanplus/aseanplus-news/2026/08/31/brunei-to-promote-tourism-at-sabah-international-expo>

- 말레이시아 페락주, 숙박 관광객 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26/08/31/perak-offers-tourism-incentives-eyes-turning-taiping-into-air-sports-hub>

- 말레이시아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6만명 태국 남부 지역 방문 예상

<https://www.nst.com.my/news/regional/2026/09/1523271/malaysians-flock-southern-thailand-holidays-spend-estimated-rm36mil>

- 에어아시아, 튀르키예 페가수스항공과 최초로 코드셰어 협정 체결

<https://www.nst.com.my/business/corporate/2026/09/1524298/airasia-pegasus-link-bridge-asia-and-europe>

- 말레이시아항공, 28년만에 부산 재취항

<https://www.nst.com.my/business/corporate/2026/09/1525665/malaysia-airlines-returns-busan-after-28-years-firefly-enters>

- 청두-페낭 직항 노선, 16개월 동안 약 54,700명의 승객 운송

<https://www.nst.com.my/news/regional/2026/09/1528745/chengdu-penang-route-sees-54700-passengers-generates-rm30mil-tourism>

- 사바주 관광업계, 방문의 해 앞두고 패키지 보조금 등 정책적 지원 요구

<https://www.nst.com.my/news/regional/2026/09/1531283/sabah-tourism-players-look-for-package-tour-subsidies>

- 태국, 말레이시아인 무비자 체류기간 60일에서 30일로 단축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6/09/1529891/thailand-halves-visa-free-stay-malaysians-30-days-sept-15>

- 대한항공, 쿠알라룸푸르-인천 노선에 대형기 투입 검토

<https://www.nst.com.my/business/corporate/2026/09/1538437/korean-air-mulls-larger-widebody-aircraft-kl-seoul-incheon-route>

- 에어아시아 재무위기에 따라 정부가 일부 노선을 경쟁사가 인수할 것을 타진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에어아시아 측은 즉각 부인

<https://www.nst.com.my/business/corporate/2026/09/1533825/malaysia-talks-rival-airlines-it-monitors-airasias-financial>
<https://www.nst.com.my/business/corporate/2026/09/1535329/most-ludicrous-statement-ive-seen-25-years-tony-fernandes>

- 말레이시아 국내 관광 지출 전년 대비 12.3% 증가

<https://www.nst.com.my/business/economy/2026/09/1539083/domestic-tourism-expenditure-increased-12pct-yoy-q2-2026>

- 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 국제 메가허브 공항 순위 4위(저비용 메가허브 중에서는 1위) 기록

<https://www.nst.com.my/business/corporate/2026/09/1534906/klia-worlds-fourth-most-connected-international-megahub>

- 말레이시아관광청, 내년 유치 목표 달성 위한 대규모 예산 배정 요청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6/09/1539552/tourism-malaysia-seeks-bigger-2027-budget-allocation-hit-47mil-a-rivals>

- 인바운드관광협회, 디젤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업 부담 호소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6/09/1540256/two-months-rising-fuel-costs-kill-tour-bus-industry-says-mita>

- MM2H 비자, 약 2년간 7,650건 접수 및 89억링깃 경제가치 창출

<https://www.nst.com.my/property/2026/09/1542136/mm2h-draws-7650-applications-generates-rm885bil-economic-value>